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’ 우승자**

**신다인 코멘트 및 각종 기록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29일(금) ~ 8월 31일(일) |
| 3 | 장 소 |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 [Sun(OUT) / Point(IN)] |
| 4 | 주 최 | KG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826야드-예선, 6,728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배소현, 이예원, 노승희, 박현경, 방신실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, 김민선7  김민주, 정윤지, 고지원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서연정, 황정미  김수지, 정슬기, 김지현, 김채린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신다인,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(67-66-71) 우승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35>

**[대회 관련 주요 기록]**

* **연장 기록**

텍스트, 라인, 번호, 폰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\*4년 연속 연장 승부 끝에 우승자 탄생**

- 2025시즌 (2차연장) 우승 신다인, 2위 유현조, 한빛나

- 2024시즌 (3차연장) 우승 배소현, 2위 박보겸

- 2023시즌 (1차연장) 우승 서연정, 2위 노승희

- 2022시즌 (1차연장) 우승 황정미, 2위 김수지

**- 대회 생애 첫 우승자 기록**

2025 신다인 / 2023 서연정 / 2023 김수지 / 2022 황정미 / 2019 박서진 / 2018 정슬기 / 2017 김지현 / 2012 이예정

**[신다인 주요 기록]**

**- KLPGA 정규투어 48번째 출전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**

\*2025시즌 7번째 생애 첫 우승자(김민주, 김민선7, 이동은, 박혜준, 고지원, 김민솔, 신다인)

\*2020년 입회 / 2024시즌 정규투어 데뷔(신인상포인트 9위)

\*2025시즌 최고 성적

: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/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공동 14위

**- 정규투어 시드권 확보**

\* 2027시즌까지 정규투어 시드권 확보

**[신다인 타이틀 순위]**

-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32위(70점) \*기존 X(포인트 획득 실패) → 32위(70점)

- 상금 순위 29위(260,081,667원) \*기존 74위(80,081,667원) → 29위(260,081,667원)

**\*2025시즌 기록**

텍스트, 스크린샷, 번호, 평행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\*개인 기록**

텍스트, 스크린샷, 번호, 폰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[신다인 코멘트]**

**Q. 우승 소감**

항상 이 순간을 꿈꾸면서 우승하면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다. 그래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아빠가 이번 시합을 하면서 많이 걱정하셔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다. 이번 우승을 통해 아빠가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쁘다. 1라운드 끝나고 인터뷰하면서 써닝포인트에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, 진짜 현실로 일어나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다.

**Q. 오늘 경기를 돌아보자면?**

샷에 자신 있었는데 오늘따라 플레이하는데 너무 좌우로 많이 갔다.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부담됐다.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파 세이브를 하다 보니 우승까지 했다.

**Q. 연장전이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?**

티샷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, 아직도 공이 굴러간다는 얘길 듣고는 ‘이런 행운이 올 수 있구나’ 생각했다. 세컨드 샷도 나쁘지 않게 쳐서 ‘하늘이 준 첫 우승의 마지막 기회’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그걸 놓치면서 다시 위기를 맞이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.

**Q. 두 번째 연장전에서 버디를 기록할 때도 짧지 않은 거리였는데?**

첫 번째 연장전 때 남은 거리가 짧았지만 오히려 가장 못하는 거리였다. 두 번째 연장전에서의 거리가 더 길었지만 더 자신 있었다. 오히려 이 거리에서는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퍼트했고 성공했다.

**Q. 스윙에 대한 슬럼프가 4~5년 동안 있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은?**

제가 그만 두기에는 골프와 함께한 시간도 오래됐고, 어릴 때 잘 쳤던 것을 믿고 언젠가는 빛을 발휘한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버텼다. 옆에서 부모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.

**Q. 본인 플레이에 점수를 준다면?**

기술적인 면은 30점, 그 외 멘탈적이거나 버티는 힘은 90점은 줄 수 있다. 플레이할 때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.

**Q. 같이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있나?**

가장 유명한 선수는 유해란 선수, 박현경 선수, 박민지 선수, 윤서현 선수다. 같이 연습했던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프로가 되어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좀 힘들었다. ‘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’ 고민도 많이 했고, 연습도 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.

**Q. 올해 남은 목표가 있다면?**

예상보다 빨리 우승하게 되면서 남은 대회에서도 한 번 더 우승하는 것이 목표다. 앞으로도 우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.